

Vol.84 2023. 05

특집 : 튀르키예 긴급 구호 활동  
2023 FMB 리더십 간담회  
FMB, SRDC, WMTC 선교저널

# FMB Missio Dei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3년 5월 25일 • 홈페이지 [www.fmb.or.kr](http://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mailto:fmbkorea@fmb.or.kr)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Contents



- 제목 :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 Photographer : 조 신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MB Missio Dei

머리글	03
튀르키예 지진 현장	04
2023 FMB 리더십 간담회	12
FMB 은퇴선교사 감사예배	22
FMB 이사장 이·취임예배	26
WMTC 원장 이·취임예배	28
이현모 교수 정년퇴임 감사예배	30
FMB 연보고서 양식 평가와 제안	32
“목적현금”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47
선교사 이야기	56
33기 선교사 훈련소감문	62
33기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65
사진으로 보는 33기 훈련이야기	70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72
튀르키예 단기 선교여행	76
헨즈온, 저니맨 단기선교 프로그램	78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80
in2mission 안내	82

## 침례교해외선교회, 선교전략연구개발원, 세계선교훈련원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선교, 행복한 동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장 13-15절)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겸손하게 수종 들어야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는 가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 위기를 넘어 기회로

문기태 목사 (창원침례교회 담임/ FMB 이사장)

점차 선교적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때입니다. 선교지의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고 선교사를 거절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선교회도 기존 전략과 방법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해외선교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때에 세계선교훈련원에 선교사 훈련을 받겠다는 지원자가 채워지고 있음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힘을 다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설득하여 만만세 운동을 통해 매월 일만원 헌금을 하는 개미군단을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이 모아지면 모금이 어려운 신입선교사와 열악한 지원을 견디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FMB와 모든 선교사들에게 2023년도가 바로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함께 하는 FMB

#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 1. 새벽의 공포 : 지진 발생

문승호 (FMB / T국)

2023년 2월 6일 새벽 4:17, 굉음이 일어나고 침대가 심하게 흔들려 잠에서 깨어났다. 온 몸에 스며 드는 공포로 60초 동안의 흔들림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우리 도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진원지에서 7.7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새벽에 마을 골목에는 자다가 뛰어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공포에 떨며 웅성거릴 때에 주변 도시들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1:30에 일어난 근처 다른 곳의 강도 7.6의 지진과 2월 20일 오후 8시경에 일어난 세 번째 또 다른 강진은 피해를 가중시



켰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 4월 20일 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진 사망자는 50,783명이다. 지진 피해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11개 주에서 일어났고 이재민 수는 1,350만명이나 된다. 이중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간 이재민이 130만명이 넘는다.

튀르키예는 엄청난 지진 피해 앞에 망연자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모와 자녀와 이웃의 생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건물 잔해속에 묻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빠져 나왔으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건물의 잔해에 묻힌 채 핸드폰으로 생존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

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로 인해 생존한 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슬람의 정명론 때문에 상대적으로 죽음을 잘 수용하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인재였다. 실제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 지진은 운명이라고 말하여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지진 현장에 거주하던 사역자들은 다행히도 무사했으나 집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의 사역자들은 이재민이 된 현지 교우들을 돕는데 온 힘을 쏟았다. 주변 도시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은 지진 후 즉시 구호활동에 뛰어들어 긴급구호 활동을 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구호단체들과 교회들이 입국하여 사역할 때에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과 함께 구호사역에 참여했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와 같은 대도시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지진 현장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탄불 교회 연합회는 현지 목사를 파견하여 하타이 지역 이스켄더룬시에 텐트촌을 만들어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제공했다. 앙카라의 쿠틀루쉬 교회연합은 아드야만에 2백여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컨테이너 마을을 마련했다. 이즈미르의 한 교회는 하타이 지역에서 하루 수 천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 도시에서 달려온 수많은 사역자들이 텐트와 구호품을 나누며 초기 긴급 구호 활동을 벌



여왔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한국교회를 선두로 하여 글로벌 교회가 온 힘을 다해 헌금하여 보내준 구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적인 재난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한국교회의 참 사랑의 실천을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났다. 이 지면을 빌려 지진 구호헌금과 기도로 함께 마음 써주신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 2. 일하시는 성령님 : 초기 구호활동 & 튀르키예의 잠재력

지진 지역에서 가까운 M시에 침례회 해외선교회의 교회개척팀이 20여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지진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즉각적으로 구호팀을 구성했다. 우리 구호팀은 자연스럽게 가용 가능한 팀의 일부 선교사들과 현지교회 지도자 부부로 구성되었고 현장에서 돕는 현지인들이 구호팀에 참여했다. 지진 다음날 바로 구호물자를 구입하고 구호



활동을 위해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가 가장 큰 하타이 지역으로 구호물자를 날랐다. 먼저는 안디옥의 중심가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구호센터를 마련했다. 사실 우리가 마련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진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적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안디옥의 한 건축자재 회사가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 회사의 전시장은 가건물로 가볍게 건축되어 지진에 무너지지 않았고 단지 내부의 전시된 건축자재들이 부서진 정도였다. 전체 건물의 160여평의 공간을 정리하고 그곳을 구호센터로 만들었다. 구호센터는 너무 크고 우리 자신은 그 필요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구호센터가 마

런되는 것과 동시에 긴급 구호를 위해 한국에서 온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연합하여 이 공간을 긴급구호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전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구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터키의 교회들과 해외에서 오는 구호단체들 그리고 다른 도시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하여 구호활동을 했다.

초기 긴급 구호활동시의 목표는 지진 피해자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먹을 것과 더불어 추위를 이겨낼 담요 등이 첫 1-3일 동안에 필요했다. 지진 초기에 물과 빵 그리고 담요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지진 현장에서 나누었다. 곧바로 이들에게 임시 거처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 천막을 제공했다. 우리 구호팀은 공적인 지원의 범위 밖에 있는 시골 지역 피해자들의 대피 시설 마련을 위해 천막을 준비하여 나누었다. 지금까지 직접 구입해서 나누어 준 것이 400여개에 가깝다. 텐트는 15~20㎡ 크기로 한 가족이 임시거처로 지낼 만한 크기이다. 집이 손상되어 안에서 머물 수 없거나 여진의 두려움으로 밖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지진 지역의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필요에 따른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나누어 주거나 설치를 해 주었다. 이와 함께 생필품도 준비했다. 우리 구호팀은 주로 하타이 지역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시골에 있는 피해자들은 구호센터까지 올 수가 없어 작은 트럭을 두 대 마련하여 생필품을 싣고 구호팀들이 외진 시골 마을까지 가서 직접 전달했다. 재난을 당해 도움이 매우 필요한 튀르키예 사람들이지만 불필요하게 욕심을 내어 더 많이 받아 가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청했다. 점잖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구호품을 나누는 중에 혼란스런 일도 없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잘 받아 갔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누어 주겠다고 많이 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구호팀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튀르키예인들의 잠재된 인간성과 저력을 보았다. 지진 후 날이 지나가며 다양한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머리를 감지 못해 이가 생겨 이 약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상당한 양의 이 약을 제공했다.

### 3.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다! : 현지인 리더의 간증

이런 재난 현장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재난으로 몇몇의 리더가 드러났다. 우리 구호팀의 중요한 리더 중에는 현지인 목사 부부가 있었다. 이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몇 년 전에 교회

의 리더가 되었다. 여기 그 사모의 간증을 옮겨 본다.

2월 5일 주일, 교회에서 돌아와서 이런 저런 집안 일들을 해 치우려고 애썼다. 조금 피곤했지만 음식도 준비했다.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쓰며 돌봐야 하고 집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스스로에게 지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나 자신이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학교문제로 고1짜리 아들과 입씨름을 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어머니도 왜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다.

나는 자신에 대해 자구적인 질문들을 시작했다. 집은 늘 사람이 많고 조용한 곳이 없어서 어딘가에 혼자 있고 싶었다.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 놓고 주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부분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은채 울면서 기도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매일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뭐지요? 집안에 있을 수 밖에 없고 매일 죽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저 현실에 혈떡이는데 제 모습이에요” 울다가 지쳐서 눈물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어지지가 않았다…(중략)…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주님께 말했다. “주여! 주여! 내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이 날 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17분, 지진으로 인해 눈을 뜬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느꼈다. 단층인 우리집은 지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로 가득 찼으며, 나는 그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때 안디옥과 다른 지역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때 나는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씩 드러났고, 나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진 3일째,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드셔야 하는 아침과 저녁약 그리고 드실 음식,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사람 등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준비되었다. 나는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움직였을 뿐인데…

지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고향 안디옥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님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인도하여 보내주셨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필요를 파악하며 그들을 위해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면서도 나는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힘을 다해 도울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

라보고 그 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매일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

#### 4.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자” : 향후 튀르키예 선교의 방향

이번 지진에 대해 전형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무슬림 땅을 흔드셔서 사람들을 흔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99.8%의 인구가 무슬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에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한다. 명목적인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심어진 듯하다. 최근 모스크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에 참석한다. 두려움을 종교로 해결하려는 본능적 반응일 것이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고아들이 발생했으며 더이상 평범한 인생을 살수 없게 되었다. 그 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하기엔 더 깊은 신학적 고민과 선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지진을 경험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약한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지진이 튀르키예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가? 긴급구조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확실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1999년 마르마라 지역(이스탄불) 지진 재난 때에도 글로벌 교회들의 구호활동은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지진 피해자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구조사역을 할 때에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감사의 말을 전해 들었다. 당장 수치로 표현은 안되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하다. 교회연합회 혹은 교회들은 피해지역의 시청과 협력하여 천막촌과 컨테이너 마을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스탄불 교회연합회가 제공한 한 도시의 천막촌 텐트에는 “Protestan kiliseler tarafından saglanmistir”(개신교회가 제공함)이란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품을 나누고 생존을 위한 도움을 주고 철수할 것인가? 분명 선교적 목표와 연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다. 지진 후 두 달이 넘어서며 교회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튀르키예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조사역이 필요하다. 긴급구호처

럼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교회 역시 사회 구석에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재민들을 돌봐야 할 것이다. 산발적 활동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정하여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구호사역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진의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편으로 트라우마 치료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교회들과 국내와 해외의 상담 전문가 그룹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해지역의 교회와 구호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사역이 교회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재민들을 위해 트라우마 상담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소수지만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트라우마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아이들 교육의 회복이다. 학교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지진 지역을 떠났다. 정부는 학교교육을 위해 천막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은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고 오전 오후반 수업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아이들에게 내밀어야 한다. 튀르키예 인구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며 0~14세까지 인구 비율이 22%이다. 지진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혹은 한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 문화활동, 음악회, 캠프 등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온라인(All-line)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사역팀을 활용하여 연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번째는 재건과 재활을 위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을 재건축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고향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이재민들은 천막촌이나 컨테이너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재민 촌에는 매일 공동 식사를 마련해 주는 정부나 민간 단체가 봉사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고 매주 혹은 격주 마다 구호품을 받아서 생활한다. 이런 재난 현장의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게으른 천막 생활에 익숙해져 가며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이 재활의 장애가 된다. 또한 지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이재민들이 재정적 한계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머물 곳이 없다. 천막촌이나 컨테이너 마을로 들어가나 희망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이들이 원래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난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재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농업 공동체,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도움 등의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 5. 구호활동 vs 복음전도 :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선교사역은 전도, 제자양육, 교회개척 그리고 지도자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재정을 투입하여 구제하거나 돕는 일은 적었고 실제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번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동반사적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갑자기 신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있었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에 대한 논쟁이 기억 났다. 한국 침례교회는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늘 강조해 왔다. 나 역시 복음전도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30년 이상 하고 있으나 지금 선교 현장의 한가운데 서서 사역의 우선성은 현장의 상황이 정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구호활동은 일반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과 다른 미묘하며 행정적 혹은 법적으로 복잡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지진 재난을 통해 배웠다. 재난발생시에 초기 긴급구호 활동과 중장기 재건 활동 등 재난 후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재

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지원은 절대적인 요소인데 국가를 넘어서는 물질적 구호에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NGO)와 같은 합법적인 구조 또한 필요하다. 이번 지진 재난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비정부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많은 선교지는 재난의 연속이다. 최근 세계적 이슈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이 대표적이다. 선교사는 재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싶어하나 때로는 재난 현장이 창의적 접근지역일 경우, 사정에 따라 구호활동을 위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처럼 앞으로 일어날 글로벌 재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단적 차원의 NGO가 필요할 것이다.

사진 : 조신, 김하늘

## 2023 FMB 리더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8일 오후 2시 / 대전 WMTC
- 진행 : 이병문 WMTC 부원장
- 대담자 : 문기태 FMB 이사장, 김중식 WMTC 원장, 주민호 FMB 회장

**이병문 부원장(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제 2회 FMB 리더십 간담회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FMB 리더십 간담회는 2021년 더크로스처치에서 당시 FMB 이사장님과 회장님을 모시고 첫 걸음을 떤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FMB 문기태 이사장님과 WMTC의 김중식 원장님이 취임하신 해로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과 WMTC 33기 훈련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태 FMB 이사장(이하 '문') :**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까지 FMB의 이사장을 맡게 된 문기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선교훈련생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중식 WMTC 원장(이하 '김') :**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WMTC 원장을 맡게 된 김중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올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호 FMB 회장(이하 '주') :** 안녕하세요, FMB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민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라이자 세상의 소망되신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과 훈련생 여러분과 함께 대담회를 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 1. FMB 선교사들의 강점

**이 :** 첫 번째로는 우리 FMB 선교사님들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MB 선교사님들이나 단체로서의 FMB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때 어떤 자랑을 하시는지요.

**문 :** 이사장이 된 이후에 다른 교단분들을 만날 때면 침례교 선교사님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게 됩니다. 후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어느 곳에서나 환경을 이겨내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자랑스러운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이십니다.

**김 :** FMB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신실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FMB 선교사님들은 교회개척사역의 탁월한 전

문가로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계십니다. 언어사역 또한 타 교단에 비해서 탁월하시고, 이러한 점이 사역적인 진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교단 선교사님들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현장 선교사로 30여년 회장으로 2년여를 지나며 느낀 것은 우리 FMB 선교사님들은 진리안에서 자유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특별히 언어에 탁월해서 섬기는 민족의 언어와 관련된 교제 및 사전을 편찬한 분들도 다수입니다. 언어와 현장문화와 현지인들을 잘 알고 있기에 현지에서의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들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지의 환경과 한국에서의 후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돌파를 이루어 사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 II. 최근 FMB의 사역적 발전

**이** : 이사장님과 김종식 원장님께서서는 FMB의 이사로서 10여 년간을 섬겨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FMB가 어떤 면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는지 두 분의 이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 첫째로는 이사회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민호 회장님의 취임 이후에 선교사님들, 후원교회 및 이사회와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졌고 본부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듭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교현장을 방문해 보면 지부별로 연합하며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 지난 수년간 FMB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장서신의 발송, ZOOM을 통한 회의 등으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이사회회의 중요 결의 사항들도 선교사님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이사회와 현지 선교사님간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라 은퇴선교사에 대한 감사예배가 진행됨으로 은퇴선교사님들이 많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선교사 자녀 장학금



이 많이 확대되어 선교사님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교단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호 회장님이 최근에 IMB의 송상호 대표님과 많이 소통하며 IMB의 좋은 정보나 교육들을 FMB가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부족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만만세 운동을 시작하여 선교사님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돕고자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있는 모습을 볼 때, FMB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 III. 선교에 있어서의 장애물과 극복방법

**이 :** 그럼, 이제는 ‘선교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선교사 인력의 감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원 파트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본부의 신재주 총무님을 동원사역 디렉터로 임명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큰 자원임에도 우리와 잘 연결되지 않았던 자원이 MK입니다. 그래서 해외선교회 차원에서 MK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장학금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 이사장 장학금을 지원하셨고 총회 또한 MK 장학금을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가족이고, MK들이 돌봄을 받으며 기억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턴선교사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가 하는 질서있는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로 나아가 세계속



에서 꿈을 꾸고 돌아오는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가진 선교사 인력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선교역사가 늦게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인력이 충당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침례교단내에 선교를 중심으로 한 청년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에 ‘백티스트비전’이 시작되었고, 그 운동을 통하여 교단 내의 많은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여 현장선교사로 나가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3년 전부터 ‘뉴백티스트비전’을 품고 기다렸는데, 올해는 총회의 다음세대 사역위원회에서 FMB와 함께 이것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 동원과 멤버케어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텐데요,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 선교에 있어서 큰 장애물중의 하나는 ‘리더십의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현장과 선교현장에 공통점이 많은데요, 세대간에 소통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고 있고,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요즘 세대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 더 크게 쓰실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요즘 세대들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다 넘겨주어서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FMB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 IV. 임기 내 중점사항

**이** : 이제 회장님도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나셨고,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는데요, 임기중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문** : 비전 2030의 선포내용에 매달 만원씩 선교헌금을 하는 2만 패밀리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첫째주에 우리교회(창원침례교회)에서 제 1회 '만만세 선교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도 좋았고 선교에 대한 시야가 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교인들이 만만세 선교헌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만만세 선교축제를 우리 교단 내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대로 만원씩 헌금하는 2만명을 모아서 인턴선교사 및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만명, 내년에 만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여 2만명 패밀리를 이루는 것을 제 임기내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 이제는 파송전 훈련뿐만 아니라,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도 고민중입니다. 부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탁월하신데, 방향과 프로그램을 정하여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 :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품었던 모토는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함께하는 선교를 모토로 작년에 비전 2030을 선포하였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닌 현장선교사님들 60여명과 함께 고민하며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현지에 50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제자들을 선교사 훈련을 받게하여 타문화권으로 보내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WMTC와 함께 현장에 맞는 훈련을 마련하여, 100유닛의 현장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장선교사님 중에서 위기관리 디브리퍼 200명을 일으켜서 지역을 넘어 선교사님들의 디브리핑을 충분히 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교포럼을 특성화하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를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2030년이 되었을 때에는 선교하는 침례교회가 50%가 넘는 것과 1억씩 헌금하는 12개

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과 동시에 2만 FMB Family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과제중에 FMB리더십 구조의 확대 및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당부분 이루었습니다. 회장인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 성경에도 달음박질 할 때 향방없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것처럼, FMB를 이끄시는 세 분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은 변화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 V. 선교사 훈련계획

**이** : WMTC가 존재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신입선교사 훈련 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발전 및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성장과 리더십 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업그레이드 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와 논의하여 업그레이드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기 위해 입국하려면 항공료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것을 파송교회 쪽에서 부담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지원이 되어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된다면 시야가 넓어지고 리더십도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 FMB에서는 현장에서 경험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평가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학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 회의를 단순한 회의가 아닌 실제 현장의 일들을 서로 들어주고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사님들과 팀이 되어 현장의 멘토링과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 : 저는 훈련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MUT-Pro(6~10년차 선교사님을 위한 업그레이드 훈련)를 진행하였는데, 훈련중에 모범적으로 3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모시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들어가도록 해야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 VI. 질의응답

**이** : 다음으로는 선교사님들의 질문을 선정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달 전에 선교사님들에게 간담회에 대해 알려드리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1〉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선교사 전체와 소통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 : 몇 년전에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현모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FMB의 상황을 진단하고 제안을 할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각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리더십들과 한국 선교계의 리더십들이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야한다는 것과 글로벌 네트워크팀의 조직으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 오게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본부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그 동안은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하고 허락하는 정도에 그쳤었다면, 그것을 점점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2〉 “은퇴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주** :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FMB 멤버십을 유지한 채로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여 잘 사역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는 은퇴하셨지만 이후에 지방회에 소속이 되어 계속 한국교회의 자원으로 남아계십니다. 실제로 FMB에서는 은퇴하시지만 현장지부가 요청할 경우, 이분들이 한국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며 재정 계좌도 유지하고 기도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은퇴선교사님들이 FMB의 공식 멤버는 아니시지만, 우리와 관계되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3〉 “선교지의 전쟁, 재난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김** : 최근에 전쟁, 지진, 코로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FMB의 대응에 굉장한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에어 앰블런스’를 띄우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고, 튀르키예 지진 때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사님들을 귀국하시게 하였는데, 총회에서는 튀르키예 선생님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sup>1)</sup> FMB에서도 재난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위기관리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즉각적인 회의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부에서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문** :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FMB 위기관리 위원장으로서 여러건의 긴급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심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본부에서 더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부와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발전된 것들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 < 현장질문 > “한국입국승인이나 안식관 사용신청 절차에 대한 간소화 계획은 없는지”

**김** : 선교사님들께서 한국방문 승인이나 안식관 신청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고, 오히려 통제를 조금 받는 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파송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규정에 맞는 이유라면 본부에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통제를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로 입국을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낫다는 생각입니다.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규정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 이사회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파송교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의 잦은 입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한국방문은 파송교회와의 불신이 생기게 하여 결국에는 후원과 사역의 지속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고, 그렇기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억죄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에 한국에 체류중인 튀르키예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격려금 및 출국 항공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주 :** FMB 선교사로 허입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출국전 OT 때 사인하는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일원화와 선교지 무단이탈 금지는 FMB 선교사로서의 책무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함께하기 위한 내부적인 질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Ⅶ. 격려의 말씀

**문 :**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의 자랑이자 열매입니다. 그야말로 온 몸을 던져 선교하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복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파이팅!!

**김 :**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잡고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지로 보내셨기에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붙드실 것이고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 망가진 세상에 침례교회들의 얼굴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이 우리 침례교회들에게도 전달된다고 믿어집니다. 계속 힘내시길 바라며,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반드시 맛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FMB 은퇴선교사 감사예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FMB에서는 2022년 12월 서울 소재의 서부침례교회에서 은퇴 선교사 감사예배를 진행하였다. 금년에 FMB에서 은퇴하게 된 선교사 가정은 함광옥/성점둘(일본), 황규일/박일동(중국, 국내), 홍준선/백남례(인도네시아), 홍현예(베트남)의 총 4가정인데, 2022년에는 특별히 현장의 선교사 가정뿐 아니라 FMB 이사로서 선교사역을 위해 후방에서 열심히 달리셨던 김용혁 이사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은퇴 감사예배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졌다.





먼저 1부 순서에서는 주민호 FMB 회장의 사회로 김종식 FMB 이사장의 대표기도, 김인환 총회장의 설교가 이어졌다. 총회 제1부총회장인 이윤 목사와 김일엽 총회 총무의 축사에 유병기 FMB 초대회장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되었다. 100여 명의 축하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인환 총회장의 설교는 은퇴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의 걸음들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주민호 회장이 순서를 진행하며 표현한 선교사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은 감사예배 시간을 더욱 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FMB 은퇴 선교사 감사예배가 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FMB 내부만의 행사가 아닌 침례교 교단이 함께한 행사였다는 사실이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을 우리 침례교가 다 함께 기억하고 있음은 FMB가 지향하는 ‘함께하는 선교’의 모토처럼 예배에 참석한 축하객과 더불어 우리 침례교가 모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2부 순서는 안진오 선교사가 맡아 진행하였는데, 즐거운 진행 분위기 덕분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웃음으로 감사예배 시간에 축하의 마음을 더할 수 있었다. 2부에서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각 지부에서 지부장 및 선교사들의 축하 인사 영상이 줄을 이었다. 은퇴 선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함께 지켜보았던 이들의 축하는 은퇴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교단 총회장과 FMB 이사장의 격려가 더해졌고, 총회와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준비한 축하 선물과 함께 FMB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은퇴를 기념하는 기념품은 축하의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축복이 가득 담긴 축하객들의 따스한 축하를 받으며 FMB 은퇴 선교사들은 지난날 걸어온 사역의 걸음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3부 순서에서는 서부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함께한 이들이 미처 나누지 못했던 답소들을 나누었다.



음을 전하는 자로서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의 서울은 눈보라가 휘날리며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모습이었지만, FMB 은퇴 선교사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던 서부침례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축하하는 마음들이 모인 따뜻함 그 자체였다. 주의 종으로 귀하게 사역하셨던 다섯가정이 비록 FMB에서는 은퇴하지만, 복

# FMB 이사장 이 · 취임 감사예배

- **이임 이사장**: 김중식 목사 (포항중앙침례교회 담임, FMB 이사, 인도침례신학교 이사장, FMB 제6대 이사장 역임)
- **신임 이사장**: 문기태 목사 (창원침례교회 담임, FMB 이사, FMB 제7대 이사장 취임)

FMB는 2022년에 비전 2030을 선포하였고 이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창원교회에서 제7대 이사장이 · 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1월의 한파 가운데에서도 FMB의 이사진을 비롯하여 본부 스텝, 한국에 체류중인 선교사 및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1부 감사예배 순서는 총회 해외선교부장인 이창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FMB 이사인 송희진 목사의 대표 기도로 시작하여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형운 목사의 ‘쫓아잡시다’라는 설교로 계속되었다. 김형운 목사는 설교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달려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 말하였는데, 이는 감사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어진 2부 이·취임예배 순서는 FMB 이사를 맡고 있는 김종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이임 이사장을 소개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식 목사는 이임사에서 그동안 이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임 이사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뒤이어 취임 이사장 소개 및 취임패를 수여하는 순서가 있었고, 신임 이사장을 축하하는 총회 김인환 총회장과 FMB 이사 및 지부장들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하였다.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문기태 목사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 창원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소감에 이어서 FMB 순회 선교사인 김종포 목사의 권면의 말이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었고, FMB 이사인 이영은 목사와 가야지방회장인 유찬선 목사의 축사와 함께 문기태 신임 이사장의 인사말로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졌다. 제5대 이사장을 지낸 김용혁 목사의 축도로 이사장이·취임 예배는 마무리되었다.



# WMTC 원장이 · 취임 감사예배

- **이임원장** : 유관재 목사 (성광침례교회 담임, WMTC 7대 원장)
- **취임원장** : 김중식 목사 (포항중앙침례교회 담임, WMTC 8대 원장 취임)

지난 2월 3일 FMB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세계선교훈련원 원장이 ·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원장으로서 수고한 유관재 목사를 축복하며 8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김중식 목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중식 신임 원장은 작년까지 FMB의 이사장으로 섬기며 WMTC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평소에도 훈련원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FMB 이사들과 총회 해외선교부장 및 침신대 안희열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FMB의 관계자들이 함께하였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단은 다르지만 포항 내에 있는 다수의 지역교회 목사들이 함께하였다는 점이다.

1부 순서는 이창순 목사(총회 해외선교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임성도 목사(FMB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용혁 목사(FMB 순회 선교사)가 ‘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조수동 목사(FMB 이사)의 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 김용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섬기는 것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2부 순서는 FMB 주민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문기태 목사(FMB 이사장)와 이창훈 목사(포항지방회장)가 이임&취임하는 원장에게 감사패와 취임패를 각각 전달하였다. 총회 김인환 총회장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FMB 이사로 섬기고 있는 김종성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였다. 축사는 WMTC 4대 원장을 역임한 안희열 교수, 포항교회 담임인 조근식 목사, 포항기독교연합회 회장인 박석진 목사 그리고 포항성시화 운동 본부 대표 본부장인 박성근 목사가 하였다. 김종식 신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 귀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선교 지원자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훈련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문 WMTC 부원장의 광고와 FMB 이사인 손석원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이임원장인 유관재 목사는 WMTC가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을 때 원장을 맡았었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훈련원이 흔들림 없이 선교사 훈련을 잘 수행하도록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신임원장인 김종식 목사는 FMB 내에서도 이사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역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포항중앙침례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역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선교 환경도 다르지 않다. 급감하는 선교 지원자, 지역 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피로감, 현장 선교사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업그레이드 훈련의 필요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훈련원의 사역이 중요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MUT Pro와 Senior 훈련을 시작하여 잘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는 WMTC가 이번 김종식 신임원장의 취임으로 우리 침례교단 내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훈련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현모 교수 정년퇴임 감사예배

## ■ 학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B.S.1980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1987
-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in Missions. 1992

## ■ 주요 경력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1993~2023)
- 마중물 침례교회 협동목사(2020~ )
- Vice Chair of Mission Commission Baptist World Alliance(2015~2020)
- Chair of Mission Committee Asia Pacific Baptist Federation(2010~2022)
- National Guest Professor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1999~1999)
- 세계선교훈련원(WMTC) 원장 역임



한국 선교학의 거목(巨木)이자 침례교의 자랑인 이현모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지난 22년 12월 15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아가페홀에서 정년퇴임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행사 당일에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막히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이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자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이들이 함께하였다. 이번 감사예배의 준비와 은퇴 기념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안희열 교수가 준비 위원장으로 수고하였고, 침신대 실천신학 교수진과 FMB, WMTC가 주최가 되어 예배를 진행하였다. 침례교 총회의 김인환 총회장과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원로목사는 함께하지 못함을 축하 영상으로 대신하였고, 침신대 신학생 일동의 특송과 교수와 직원, 학생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이어졌다.

이현모 교수는 감사 인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제게 너무 과분한 뜻깊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좋았을 때나 힘들었을 때나 제 주변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여정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의 땀과 수고의 열매에 저는 작은 부분에 손을 얹어서 동역을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습니다. … 또한 저의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는 저의 모든 힘든 과정에서 최고의 카운슬러였고 동역자였고 위로자였고 격려자였습니다. 와이프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고 이 여정은 저에게 참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 이런 시대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그의 선교적 여정을 함께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감사예배는 총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감사예배 시간에는 이현모 교수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이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2부 만찬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식사를 함께하며 이현모 교수에 대한 각자의 감사 및 기억들을 나누었다. 3부는 특별히 헌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은퇴 기념 논문집을 헌정하며 이태웅 박사와 이병문 WMTC 부원장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현모 교수는 한국 침례교 단내에 아직 선교 행정도 선교 훈련도 준비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여 오늘날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가 WMTC를 시작하며 건물을 세우고 커리큘럼을 개발해 나아갔던 것은 우리 침례교 선교의 든든한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침례교 연맹에서의 활동과 같이 대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선교가 세계에서 자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선교학 교수로서, 선교 동원가로서, 훈련원 원장으로서 또는 해외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왔다. 한 선교신학 교수의 은퇴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선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 FMB 연보고서 양식 평가와 제안



| FMB(TK) / SRDC 부원장  
황이브라힘<sup>1)</sup>

## 1. 연보고서의 역할

FMB에 소속된 모든 사역자들은 매년 연말에 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연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본부와 현장 사역자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역자는 연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본부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부로부터 지원받기 원하는 사항과 본부에 건의 사항 등을 나눌 수 있다. 본부는 제출된 연보고서를 통해 먼저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보고서에 나타난 사역자들의 지원 요청과 건의 사항에 기초해서 사역자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 방안과 현장 사역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부와 현장 사역자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보고서는 현장 사역자들의 전반적인 삶과 사역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연보고서가 사역자의 삶과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본부가 현장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보고서는 전인적 평생 사역의 관점에서 선교사가 연말에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성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풍성한 삶과 사역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1) 2005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중국 신장 위구르족 사역을 감당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튀르키예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현장 사역을 겸해서 FMB 산하 기관인 전략연구개발원(SRDC)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FMB의 연보고서가 본부와 현장 사역자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 역할과 사역자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용해온 FMB 연보고서 양식을 다른 단체들의 연보고서와 비교 평가하여 전인적 평생 사역의 관점에서 새로운 양식을 제안하는데 있다.

## 3. 연구 방법

- 1) 현재의 FMB 연보고서 양식을 교단 선교부 4곳, 개교회 선교부 3곳, 초교파 국내 선교단체 1곳,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2곳의 사역 보고서 양식들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현재의 FMB 연보고서 양식을 이현모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선교사 평가와 한국선교훈련원(GMTC)의 선교사 프로파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4. FMB 연보고서 양식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 1) 선교사에게 필요한 영적 리더십

선교사는 사역지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성품적 자질이나 태도와 사역 기술과 관련한 특성을 언급하였다(딤후 3:1-15; 딤후 1:5-9). 이것은 선교사가 성경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경이나 신학이나 선교학을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품과 영성과 사역 기술 계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Robert Brynjolfson 2013, 128-129).

### 2) 전인적 선교 훈련

전인적 선교 훈련은 훈련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와 그가 효과적인 인간관계 및 사역기술 계발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Robert Brynjolfson 2013, 125). 이러한 전인적 선교 훈련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존재(being), 행동(doing), 지식(knowing)이다. 존재는 심장에, 행동은 손에, 지식은 머리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2013,

77). 모든 선교사는 전인적 선교 훈련이 선교사 생애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품과 영성 형성과 사역 기술 계발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전인격의 필요를 채우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교 본부와 파송 교회도 선교사가 선교사 생애 동안 전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역자의 사역적인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 3) 한국선교훈련원(GMTC)의 선교사 프로파일

한국선교훈련원(GMTC)은 1993년 6월 7-10일에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선교사 훈련자들의 모임에서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선교사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파송 전에 받는 사역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지에서도 지속적으로 훈련 받고 성장하는 평생훈련을 염두에 두고 작성 되었다. 전인적인 평생훈련에서 존재(Be)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영적 성숙, 인격의 성숙, 가정, 감정적/육체적 건강, 인간관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Know) 항목에는 성서적/신학적 지식이 있다. 행동(Do) 항목에는 사역 기술, 선교학 및 타문화 사역 기술, 실제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 4) 선교사 평가 항목

이현모 교수는 선교사의 평가 항목으로 언어 습득, 문화 적응, 사역 내용, 인간 관계, 재정 관리, 자기 관리와 같은 6개의 항목을 제안하였다. 언어 습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인과 언어학교 디렉터와 선임 선교사의 언어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문화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 이해 평가, 상황화 점검표, 스트레스 측정 지표, 스트레스 요인 분석 지표를 제시하였다. 사역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역 목표 점검표, 사역 목표에 대한 성취도 점검표, 사역의 전략적 가치 평가, 사역 평가 질문지(현지인 용)를 제시하였다. 인간 관계 항목에서는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본인용, 상대평가용), 동료 한인 선교사들과의 관계, 현지인과의 관계, 모 교회나 파송 기관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척도를 제시하였다. 재정 관리 항목에서는 재정 관리 지표를 제시하여 재정 관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 항목에서는 영성 관리, 생각 관리, 감정 관리, 지적 관리, 시간 관리, 돈 관리, 성 관리와 관련된 자기 관리 능력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 5)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습관 : 성찰

선교사는 영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기 위해서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리더

십의 원리들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더 폭넓은 인식의 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리더십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푸르드만 교수는 이론인 상위 레일과 실천인 하위 레일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성찰’(reflection)이라고 하였다. 성찰은 실천에 비추어 이론을 평가하고, 이론에 비추어 실천을 평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콜브(David A. Kolb)는 학습을 결과가 아닌 경험에 기초한 연속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 중 학습을 일으키는 반성적 사고의 역할을 중시하였다(전성결 2016: 71에서 재인용). 변진석 원장도 “타문화에서의 경험 자체보다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라며 성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2014: 8). 이와 같이 선교사의 리더십 개발 과정에서 ‘자기 성찰’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교사는 자신이 타문화 리더십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숙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 깊고 넓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팀 안에서 리더든 멤버이든 상관없이 관계의 막힘 앞에서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라는 빛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 조명해 보고 그 원리에 따라 자신을 진단하고 변화시켜 나갈 때 선교사의 리더십은 한층 더 계발될 것이다.

선교사가 문제 상황에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로버트 클린턴은 그의 ‘지도자 부상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리더십 상에서 갈등 상황을 ‘경계선 과정’여기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동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기 반성적 성찰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주재권(Lorship)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서 따랐던 육신적인 소욕을 깨뜨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고전 3:1-4; 갈 5:16-17).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점점 더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박기호 2015: 3-4).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의’의 기초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성취들을 허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빌 3:7-9; 조은아 2016: 14).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선교사가 생애 동안 ‘성찰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가 되면 그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갈등을 해결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리더십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로버트 클린턴 2014: 13, 69; 조은아 2016: 12-16).

## 5. 현 FMB 연보고서 양식의 구성 요소들

현재의 FMB 연보고서는 사역자의 기초 프로필, 사역 정보, 사역 보고와 사역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 프로필

- (1) 본인 정보: 이름, 영문 이름, 가명, 이메일, 현지 핸드폰, 인터넷 전화
- (2) 기타 정보: 최종학력, 진행 중인 과정(학위), 논문 또는 현지 출판물, 우편 주소(영문), 카톡 아이디, 주택청약 소유 여부, 정기우편물, 자기집 소유 여부(국내)
- (3) 자녀 정보: 이름, 성별, 주민번호, 생년월일, 교육받은 언어, 거주지, 학교/학과/학년
- (4) 보험 가입 정보: 본부여행자 보험(가입), 기타(현지보험, 한국 개인 실비보험, 타단체(듀얼단체), 한국 체류중(안식년, 안식월), 미가입)

2) 사업정보: 나라, 사업도시, 거주도시, 팀명, 사업종족, 사업언어, 주종교, 듀얼단체, 비자종류, 주사업, 보조사업, 본부에 보고한 편지횟수, 본부에 보고한 재정보고서 횟수

### 3) 사업보고: 2022년 사업보고

- (1) 사업 목적과 목표
- (2) 구체적인 실시 내용 및 결과
- (3) 본인 평가 및 건의 사항
- (4) 현지 출석 회사 및 역할

### 4) 사업계획: 2023년 사업계획

- (1)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2) 출입국 예정 기간
- (3) 년 휴가 계획(3주)

## 6. 연보고서 양식에 대한 평가: 사역보고와 사역 계획 부분

1) 전인적 평생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FMB 연보고서는 '사역'(Do)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역 보고와 계획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역중심적인 연보고서는 본부와 선교사 사이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보고서가 한 해 사역을 보고하고 새해 사역 계획을 세우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자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역자가 자신의 삶과 사역을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으며 전인적인 사역자로 구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연보고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인적 평생 사역의 관점에서 존재(Be)와 지식(Know) 부분도 함께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2) 전인적 평생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현모 교수가 선교사의 평가 항목으로 제안한 언어 습득, 문화 적응, 사역 내용, 인간 관계, 재정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계획이 평가가 연보고서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1) 언어 습득의 목표는 사역자의 사역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이는 생존 언어를 다른 이들은 사역 언어 습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현지어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어의 진보에 따라 현장에서 사역자의 삶과 사역도 더 풍성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지어를 더 잘 구사하고 현지 문화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면, 현지인들은 사역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더 깊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 현지인들과의 차이점이 점점 더 줄어드는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현지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역적인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보고서를 통해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의 전략적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4) 본인 평가 항목에서 '인간 관계'와 '자기 관리' 항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사역자가 더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도록 돕고 자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인간 관계 항목에서 분류한 5가지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기 원하는가? 자기 관리 항목에서 제시한 8개의 영역에서 자기 관리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가?

(5) 자기 관리 항목에 '감정적/육체적 건강 관리' 부분도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

(6) 이현모 교수가 제안한 점검표나 평가 항목을 첨부해서 사역자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

(7) 항목들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어떨까?

3) 본인 평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이 주어지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역자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1) 본인 평가 부분에 '인간 관계'를 평가하는 질문들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이현모 교수의 선교사 평가 항목 중의 하나가 '인간 관계'이다. 이것은 선교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현지인과의 관계, 현지 교회와의 관계, 파송 교회와 파송 단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인간 관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삶과 사역이 더 풍성해질 것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본인 평가 부분에 '사역 기술'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자. 사역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사역 기술 부분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꼈는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3) 본인 평가 부분에 '지식'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자. 지식 부분에서 어떤 영역을 더 배우기 원하는가? 본부에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는가?

3) 건의 사항도 세부 항목이 주어지지 않다. 세부 항목별로 건의 사항을 기술하면 본부에서 항목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지원받기 원하는 사항이 빠져 있다. 지원받기 원하는 사항도 본부와 파송 교회와 동료 사역자 등으로 나누어서 적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5) 제안 사항: 본부에서 혹은 SRDC에서 연보고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본부에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7. 다른 단체 연보고서 양식들과 비교 분석: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첨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빼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 1) FMB를 포함한 4개의 교단 선교부, 3개의 개교회 선교부, 2개의 초교파 국내 선교단체의 연보고서 혹은 사역 보고서 양식은 거의 사역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사역자가 전 인격적으로 지식과 성품과 사역기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역하는 관점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 2) 교단 선교부 4의 경우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월별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씨 뿌림, 영혼 추수, 소그룹, 교회 개척, 제자 양육, 지도자 훈련 상황을 구체적 인 숫자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멘토와의 만남에서는 다른 월별/분기별 보고서에서는 영적인 삶, 가족/일 관계, 사역 영역을 나누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3) 초교파 국내 선교단체 1의 경우는 교회 사역, 전문 사역과 기타 사역을 구분해서 해당 사역에 대한 팀사역과 개인 목표를 나누어서 적도록 하고 있다.
- 4) 교단 선교회 4,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1과 2는 사역자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현지인, 팀 멤버, 현지 신자/교회,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 5) 교단 선교회 1과 4, 개교회 선교부 2는 가족의 생활과 건강,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개교회 선교부 2의 경우는 알리고 싶은 가족 상황을 묻고 있다.
- 6) 교단 선교부 4, 초교파 국내 선교단체 1,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1은 자기 관리(건강, 영성, 생활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 7)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1의 경우는 건강, 임무, 책무성, 자기 계발의 관점에서 설문형과 서술형을 혼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 항목에서는 육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 생활, 영적 생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다양한 관계, 생활비, 주거 환경 등을 1에서 5 사이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받은 축복과 격려, 가장 힘들도 스트레스가 되었던 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성장한 점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본부나 팀이나 다른 사역자로부터 받은 지원과 본인이 다른 지체들에게 한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년 동안 휴식한 날 수, 매주 휴식을 위한 안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효과적인 섬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묻고 있다. 더 나아가서 향후 몇 년 동안 자녀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이 삶과 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답하게 한다. 임무(사역, 역할)에서는 먼저 단체의 목적 선언과 목적이 갖는 목표들을 적고 있다. 다음으로 사역자의 삶과 사역이 이러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임무, 임무 수행 기간, 은사 사용 기회 여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역할 수행 중에 새롭게 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것 등에 대해서 답하게 한다. 그리고 소속된 다른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경우, 그 공동체로부터 받은 지원과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에게 제공한 지원이나 도움, 파송 교회로부터 받은 지원, 파송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제공한 기회, 내년도에 단체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기 위한 사역 발전 계획, 단체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훈련, 지원 등)을 적도록 한다. 책무성(Accountability) 부분에서는 사역자의 영적 생활, 가정 생활, 전문적인 일과 사역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해 주도록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점검해줄 멘토(사역자, 현직인 중) 존재 여부와 그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리더십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단체의 관리와 점검 체계와 지원 방식과 변화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계발(Development)에서 내년도에 제자로 더 성장하기 원하는 영역과 성장 계획, 지난 1년 동안 받은 훈련에 대한 평가, 내년도에 받기 원하는 의도적인 학습과 훈련 계획, 한 해 동안 받은 멘토링 경험, 한 해 동안 수행한 멘토링과 배운 점, 향후 1년 동안 받기 원하거나 하기 원하는 멘토링 계획과 자신의 역할, 향후 1년 동안의 목표들을 적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역자가 제출한 내용을 사역지의 팀리더, 멤버케어 담당자, 지역 대표(현 지부장)와 본부 리더십 그룹에게 보내 짐을 알린다. 그리고 파송 교회 담임 목사와 선교위원회를 포함해서 보내기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 8) FMB와 교단 선교부 1은 사역에 대한 본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FMB의 경우는 구체적인 평가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교단 선교회 1의 경우는 평가 항목으로 성과, 달성된 목표, 미흡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 평가 부분에 구체적으로 맺은 열매(성과, 달성한 목표), 부족한 점, 감사한 점, 진보된 점, 어려웠던 점, 기도제목 등으로 구성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9) 교단 선교부 1은 본부나 파송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묻고 있다. 교단 선교부 4의 경우는 중요한 이슈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앞으로 본부나 파송 교회로부터 사역, 건강 관리, 관계, 재정, 사역 기술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10) FMB와 교단 선교부 2와 3은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의 사항에서도 행정 관련, 사역 관련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11) 교단 선교회 2와 4와 초교파 한국 선교단체 1은 기도 제목을 포함하고 있다.
- 12) FMB, 교단 선교부 4, 개교회 선교부 2, 초교파 한국 선교단체,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는 년 휴가나 안식월이나 안식년이나 출국이나 여행 계획을 묻고 있다.
- 13)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1은 주 회장님이 말하는 “함께 하는 선교” 정신에 맞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 14) FMB와 교단 선교부 1의 경우는 본인의 사역 형태(제자 양육, 교육 사업, 교회 개척, 신학교, 국제 사역 등)를 묻고 있다.
- 15) 개교회 선교부 2의 경우는 여름/겨울 단기 방문 및 단기 사역지원 요청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16) 초교파 국내 선교 단체(GP)의 경우는 사역 관리 항목에 생활 관리(영성, 건강, 가정), 재정 관리, 사역 관리 부분을 포함하여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역 관리 부분에서는 사역 기획과 실행의 합리성, 사역의 효과 및 효율성, 사역의 발전과 개선점, 자신의 은사와 사역, 사역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 17)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2의 경우는 사역지 리더가 신입 사역자가 정회원 자격을 갖기 까지 반년별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파송 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내기 전에 신입 사역자와 공유해야만 한다. 만약에 리더의 평가가 신입 사역자의 평가와 다르다면, 충분히 토의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나란히 표현되도록 한다. 이

렇게 하는 목적은 파송 기관 책임자가 돌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가서에서는 먼저 언어 공부, 문화 적응, 사역, 현지인과의 관계, 팀멤버와의 관계, 현지 신자와 교회와의 관계, 리더십의 관계와 같은 영역에서 어떤 진보가 있는지를 묻는다. 다음으로 사역 공헌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역 은사와 사역지의 목표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공헌을 적게 한다. 그 다음에는, 건강 관리, 정착 정도, 재정 후원, 영적 성장, 팀 공헌도, 파송 교회와 후원 교회와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평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입 사역자와 관련해서 파송 기관이 알아야 할 염려스러운 점, 결혼이나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 싱글 사역자인 경우 언급해야 할 문제, 지난 보고서 이후에 발견한 진보, 정회원이 되기 원하는 여부, 현 단계에서 더 받기 원하는 훈련 등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 8. 새로운 연보고서 양식 제안

본 연구에서는 FMB의 연보고서 양식을 평가하고 수정 제안하기 위해 한국 교단 선교회 3곳, 외국 교단 선교회 1곳, 개교회 선교부 3곳, 초교파 국내 선교단체 2곳,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 2곳의 월별/분기별 보고서와 연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였다. FMB 연보고서 양식을 이러한 단체들의 사역 보고서 양식들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여 수정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이현모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선교사 사역 평가서와 평생훈련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한국선교훈련원(GMTC)의 선교사 프로파일을 참고하였다. 이들의 관점에서 FMB 연보고서 양식을 평가하고 수정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 프로필

FMB 본부의 연보고서 양식에서 사역자의 기초 프로필은 본인 정보, 기타 정보, 자녀 정보와 보험 가입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기초 프로필은 사역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몇 가지 정보를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본인 정보: 이름, 영문 이름, 가명, 이메일, 현지 핸드폰, 인터넷 전화

- ① 첨가 항목: 카톡 아이디, 파송 년도, 파송 교회, 파송 교회 허입 년도, 후원 관리자(이름, 연락처, 본인과 관계), 한국 비상 연락처(이름, 연락처, 본인과 관계)
- ② 삭제 항목:
- ③ 수정할 항목:

- (2) 기타 정보: 최종학력, 진행 중인 과정(학위), 논문 또는 현지 출판물, 우편 주소(영문), 카톡 아이디, 주택청약 소유 여부, 정기우편물, 자기집 소유 여부(국내)
- ① 참가 항목: 받은 선교 훈련(장단기 선교사 훈련, MUT Profession, MUT Senior, 기타)
  - ② 삭제 항목: 카톡 아이디
  - ③ 수정할 항목:
- (3) 자녀 정보: 이름, 성별, 주민번호, 생년월일, 교육받은 언어, 거주지, 학교/학과/학년
- ① 참가 항목: 학교명, 학교 구분, 학년, 메일/전화번호
  - ② 삭제 항목: 학번
  - ③ 수정할 항목: 교육받은 언어 → 학습 언어로 변경
  - ④ 자녀 정보에 이어 '부모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성함, 연세, 거주지(주소), 메일/연락전화번호
- (4) 보험 가입 정보: 본부여행자 보험(가입), 기타(현지보험, 한국 개인 실비보험, 타단체(듀얼단체), 한국 체류중(안식년, 안식월), 미가입)

## 2) 사역 정보

- (1) 기존 항목: 나라, 사역도시, 거주도시, 팀명, 사역종족, 사역언어, 주종교, 듀얼단체, 비자종류, 주사업, 보조사업, 본부에 보고한 편지횟수, 본부에 보고한 재정보고서 횟수
- (2) 변경 항목
- ① 참가 항목
    - ⓐ 현직 상태: 현장 사역, 안식월, 안식년, 기타(휴직 등)
    - ⓑ 사역지를 옮긴 경우(이전 사역지명, 이전 사역지 사역 기간, 사역지 이동 사유)
  - ② 삭제 항목:
  - ③ 수정할 항목:
    - ⓐ 팀사역 여부: 팀명, 팀장, 팀원, 팀사역 시작 년도, 팀사역 내용, 팀에서의 역할
    - ⓑ 듀얼멤버십 여부: 듀얼단체명, 주사업 단체(FMB, 듀얼단체), 듀얼단체에서 하는 사역 종류

## 3) 사역보고 수정 제안

- (1) 전인적 성장 목표
- ① 언어 습득 목표

- ② 문화 적응 목표
  - ③ 사역 목표
  - ④ 인간 관계 목표
  - ⑤ 재정 관리 목표
  - ⑥ 자기 관리(건강, 영성, 시간) 목표
  - ⑦ 자기 계발(지적, 성품) 목표
- (2) 전인적 성장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 및 결과
- ① 언어 습득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② 문화 적응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③ 사역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④ 인간 관계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⑤ 재정 관리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⑥ 자기 관리(건강, 영성, 시간)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⑦ 자기 계발(지적, 성품)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결과
- (3) 본인 평가
- ① (전도, 영혼 추수, 소그룹 개척, 교회 개척, 제자 양육, 지도자 훈련 등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 ② 감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③ 전년도에 비해 진보된 점은 무엇입니까?
  - ④ (사역, 관계, 건강, 자녀, 부모 등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충하기 원합니까?
  - ⑤ (사역, 관계, 건강, 자녀, 부모 등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복하기 원합니까?
  - ⑥ FMB 본부나 팀멤버나 동료 사역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 ⑦ 본인은 FMB 본부나 팀멤버나 동료 사역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 ⑧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 (4) (사역, 관계, 건강, 자녀, 부모 등에서) FMB 본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 ① 사역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이 영역에서 본부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가?
  - ② 성품(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이 영역에서 본부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가?

- ③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이 영역에서 본부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가?
- (5) (사역, 행정 등과 관련해서) 본부에 어떤 건의 사항이 있습니까?

#### 4) 사역계획 수정 제안

(1) 전인적 성장 목표: 사역 연차에 따라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목표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된다.

- ① 언어 습득 목표
- ② 문화 적응 목표
- ③ 사역 목표
- ④ 인간 관계 목표
- ⑤ 재정 관리 목표
- ⑥ 자기 관리(건강, 영성, 시간) 목표
- ⑦ 자기 계발(지적, 성품) 목표

(2) 전인적 성장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① 언어 습득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② 문화 적응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③ 사역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④ 인간 관계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⑤ 재정 관리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⑥ 자기 관리(건강, 영성, 시간)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 ⑦ 자기 계발(지적, 성품)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상

(4) 출입국 예정

- ① 지역:
- ② 기간:
- ③ 사유:

(3) 년 휴가 계획(3주)

(4) 안식월 혹은 안식년 계획

- ① 이전 안식월(년) 기간
- ② 안식월(년) 기간

## 9. 결론

선교사가 평생 전인적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송 전에 받는 훈련만으로 되지 않는다. 선교지에서도 전인적 사역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사역과 관련된 지식과 성숙한 성품과 영성과 사역기술을 지속적으로 계발해 가야만 한다. 이는 현장 사역자의 노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교 본부와 선교 훈련원과 현장 사역자가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만 한다.

현재 선교 훈련원이 사역자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MUT Profession과 MUT Senior와 같은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선교사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훈련과 비정기적인 훈련들이 선교사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 자신이 전인적 사역의 관점에서 매년 지식과 성품과 기술을 계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본부도 사역자들의 전인적 성장과 전인적 사역을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본 연보고서는 사역자들이 연초에 분명한 전인적 성장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한 해 동안 실천하고 연말에 한 해의 삶을 평가하고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는 연보고서를 통해 전인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본부는 연보고서를 통해 선교사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역 과정을 한 눈에 보며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기존의 연보고서는 전인적이라기보다는 사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선교사들이 매년 연보고서를 통해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가운데 사역적인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제안된 연보고서가 선교사들의 지적인 영역, 성품적(태도) 영역과 사역 기술적 영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돕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 “목적헌금”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제안)



| FMB(SRDC 연구원)  
임태순



## 1. 도입

본 연구 과제는 2022년 9월 대전에서 모인 SRDC 정례 모임에서 주민호 FMB 회장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다. 목적헌금 규정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들이 많아 행정비 공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목적헌금 규정은 “특별한 명목으로 지정된 헌금의 경우, 행정비 공제 없이 목적한대로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후원자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건축 프로젝트, 신학교나 선교센터 운영과 같은 특정 사역적 목적을 위한 헌금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비, 의료비, 항공료, 차량 구입비와 같은 선교사의 특별한(비사역적) 필요에 대한 헌금이다. 후원자가 이들(특정) 목적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경우, 목적 헌금으로 지정하고 행정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헌금들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비 공제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행정비 공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후원자/교회들이나 선교사들에게 행정비 공제 회피의 기회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SRDC에서는 목적헌금 규정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한 행정비 공제 회피의 사례들을 분석해 이 규정 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본 소고는 그 논의의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이라 믿는다.

## 2. 본론

### 1) 몇 가지 사례들

[사례 1] A 선교사는 여러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되는 일반 후원금(행정비가 공제됨)을 규모 있게 운용해 그 안에서 개척한 교회의 사역자 사례와 교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B 선교사는 파송교회로부터 매월 개척한 교회 운영과 현지인 사역자 사례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데, B 선교사는 이 후원을 목적헌금으로 지정해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사례 2] “가”교회에서 C 선교사와 D 선교사에게 매달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C 선교사는 이 헌금을 일반 후원으로 처리해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D 선교사는 해당 후원금이 장학금 목적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교회측으로 받았으며 본부에 목적헌금 처리를 요청했고 매달 입금되는 해당 후원은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사례 3] E 선교사는 “ㄱ”지역에서 사역을 하며 “나” 단체로부터 현지교회 임대료 목적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여러 해 전 E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이동했고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나” 단체의 헌금은 여전히 교회 임대료라는 명목의 목적헌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례 4] F 선교사는 후원자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 헌금의 명목의 목적헌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시간이 경과해 해당 사항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을 해당 명목의 목적 헌금으로 계속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 사례들의 경우 목적 헌금 지정 요청을 제외하면 내용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어 보인다.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는 A 선교사, C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B, D, E, F 선교사의 목적헌금 지정과 이를 통한 행정비 공제 예외 조치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 한편 자신들도 후원자(교회)들에게 헌금 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목적헌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 2) 목적 헌금 규정 운용에 대한 평가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목적 헌금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목적 헌금 운용 상태는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목적헌금에 대한 개념(기준)과 이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원칙들이 하나의 규정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온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선교사와 재정 실무자들의 행정 처리 과정에 혼선이 존재했다. 둘째, 목적 헌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후원자 또는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목적 헌금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행정비 공제 적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적 헌금들의 경우 비교적 큰 금액의 후원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가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현지에 송금된 목적헌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결산보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후원자/후원교회에 대한 책무와도 연관이 있다.

## 3) 목적 헌금 규정 적용 상황

이제까지(행정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목적헌금의 관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본부의 동의를 거쳐 진행되는 프로젝트성 헌금이다. 본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창구로서 별도의 (가상)계좌를 열어준다. 이 계좌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재정 창구로 활용된다. 다른 하나는, 선교사의 (일반)후원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지만, 후원자(교회)나 선교사의 요청에 의거 목적헌금으로 분류되어 행정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 두 형태의 목적 헌금 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로서 본부의 승인을 받아 허락된 별도의 (목적헌금)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 이 (가상)계좌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계좌가 허용된 용도 외로 활용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실제 계좌 개설시 부여된 목적과 무관한 다른 후원의

창구로 활용되거나, 또는 행정비 공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 프로젝트를 위해 부여된 별도 계좌의 운용과 프로젝트 종료시 이 계좌의 폐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후원계좌로 입출금 되는 목적 현금의 경우, 목적현금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후원에 대해 후원자나 선교사가 목적현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실무자들이 불필요한 부담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아야 할 큰 액수의 목적현금이 일반후원 계좌로 입금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은 채 송금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은 프로젝트 성 후원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관리와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후원계좌로 입금되어 목적 현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명문화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세워 이 규정에 따른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4) 목적현금 관리 규정의 명료화와 명문화를 위한 제안

그동안 목적 현금에 대한 대원칙과 몇 가지 실무 지침만이 존재했고 명문화된 행정처리 규정이 없어 실무자의 행정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를 위한 공정성 담보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목적현금 행정 처리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명료화 하고 이를 규정화 해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목적 현금을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목적현금은 두 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하나는 일반계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목적현금으로 지정되어 행정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형태다. 다른 하나는 본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별도의 계좌를 부여받고 진행되는 목적 현금 형태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목적현금이란 명목으로 분류되어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서로 다른 두 형태의 후원이 목적현금이라는 동일 명칭으로 행정처리 되다 보니 불필요한 혼선이 있어 왔는데, 위의 두 형태를 분리해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각의 규정을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후원계좌로 입금되지만 재정부의 동의를 받아 행정비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목적 현금은, “특별 (목적) 현금”으로 명명한다. 한편, 본부의 심사를 거쳐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현금은, “프로젝

트 (목적)헌금”으로 명명한다.

(2) 목적 헌금에 관한 규정 (제안)

위의 구분에 기초해 목적 헌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목적헌금

목적헌금은 후원자(교회)가 특별한 목적(명목)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재정으로 행정비 공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목적 헌금으로의 지정 여부는 본부의 다음과 같은 목적헌금 규정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특별 (목적)헌금 (Special Offerings)

특별 (목적)헌금은, 현지 사역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선교사 개인의 특별한 재정적 필요를 위한 헌금을 의미한다. 특별(목적)헌금은 그 내용에 따라 “개인헌금” (personal gift)와 “지정헌금” (Assigned Offerings)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1) 개인헌금 (Personal Gifts), 선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적 필요를 위한 단회성 헌금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후원이 포함된다. 선교사와 가족의 생일헌금, 가족적 필요를 위한 절기 헌금, 가족들의 부정기적 헌금, 자녀들 선물을 위한 헌금, 가족 위한 식사비 등이다. 이 경우, 매월 최대 가능 금액 (예를 들면 월 20 만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행정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헌금으로 처리한다.

2) 지정헌금 (Assigned offerings), 현지 사역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으며 프로젝트로 구분하기 애매한 비교적 큰 금액의 (부정기적) 헌금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사안은, 차량구입비, 항공료,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비자비 등이며, 이 외의 경우로서 (특별)지정헌금으로 처리하도록 요청된 경우는, 본부회의의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 특별(목적)헌금 지정은 (후원자 또는 선교사의) 입금 전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프로젝트 (목적)헌금 (Project Offering)

프로젝트 (목적)헌금은 선교 현지 사역과 연관된 특별 사업을 위한 헌금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후원을 의미한다. 이 후원은 다음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세운다.

- 1) 프로젝트 (목적)현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선교사는 프로젝트 모금 전에 프로젝트 기획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신청서 (별도의 양식)를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부는 프로젝트 위원회(가칭)를 통해 신청서 내용을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후, 본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가상) 계좌를 부여한다. 이 계좌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계좌로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계좌 개설 시 프로젝트 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계좌의 명칭을 부여하고 계좌의 폐쇄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을 넘어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계좌 활용 상태를 평가하고 계좌의 오용을 방지한다.
- 2) 프로젝트 위원회(가칭)의 설치와 구성, 그 운용에 대한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후원과 기금을 관리한다. 프로젝트 위원회는 기금의 입출금 관리, (프로젝트)기금 사용 결산보고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선교사는 매년 말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 프로젝트에 사용된 재정 결산 보고서를 후원자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프로젝트 (목적)현금 관리에 관한 타 단체의 규정 사례는 별첨 내용을 참조하라.

### 3. 결론

목적현금 관리에는 다음 두 가지 사안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행정비 공제 제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담보를 위한 규정의 명료화, 문서화다. 분명한 기준에 따라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행정비 공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목적)현금이나 지정현금과 같이 거액이 지출된 경우 그 결산 보고서를 받고 기금이 현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재정 관리에 대한 책무다.

한편 행정비 공제에 관련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적 현금 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선교사 후원 창구의 (본부로의) 단일화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회원 선교사들이 본부 행정 구조 밖의 다른 창구 (은행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면 행정비 공제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 과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필요는, 기본적인 재정원칙에 대한 회원 선교사들의 교육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이다. (FMB 본부로의) 후원 창구 단일화 원칙이 왜 중요한가? 본부 운영을 위한 행정비 공제 원칙이 왜 필요한가?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 공동체 전체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의

명료화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교사 모임들,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토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소고에서 제안한 목적현금 관리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각 지부와 지부장들의 모임에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 별첨. 타단체의 프로젝트 관련 규정

목적현금 중 프로젝트(목적)현금은 액수가 크고 후원자에 대한 책무도 무거운 편이다. 프로젝트 후원 관리를 위한 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타 단체들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 교단 선교부 (\*\*\*)의 프로젝트 관련 규정

본부운영세칙, 제2절 사역,

#### 제21조 프로젝트 승인

1.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절차는 지역선교부 운영세칙에 준한다.
2. 프로젝트는 지부, 지역대표, 파송교회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부 결의로 확정된다.
3.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후원금은 규정된 법인을 설립한 후 송금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 프로젝트 모금

1. 프로젝트 제안은 개인 선교사 혹은 팀이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는 지부의 동의 및 파송교회 동의와 지역선교부를 경유하여 본부 결정으로 확정한다.
3. 파송교회 이외의 모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사안에 따라 지역 위원회 경유, 선교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음으로 본부에 보고한다.
4. 확정된 프로젝트의 모금은 기간을 정하며, 기독교신문에 공고하여 모금할 수 있다.
5. 프로젝트는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잘 정리하여 지부 경유, 본부에 보고한다.
6. 프로젝트 사용 시 원화 5백만원 이상은 금융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1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초교과 선교단체 (\*\*\*)의 경우

본부운영 규정

제2절 선교사 후원금의 모금과 관리

제3조 후원금의 종류 및 처리

1) 프로젝트 헌금

프로젝트헌금(Project Fund)은 선교를 위한 특별사업에 일시적으로 쓸 목적으로 수입된 금액의 후원금을 말하며 본사는 프로젝트헌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① 프로젝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프로젝트헌금을 수입하기 전에 본사에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사는 프로젝트헌금이 수입된 경우에 다른 헌금과 구분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교사의 별도 재정계정을 통하여 입출금하여야 한다.
- ② 프로젝트 헌금의 지출에 있어서는 현지 선교사와 후원자, 본부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헌금자의 뜻대로 정확하게 헌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문서와 사진 등으로 후원자에게 보고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몽골에서? 국내에서?

| 임무열 선교사(FMB/몽골)



### 1. “형님 왜 몽골에 왔어요?”

몽골 한 가족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 23년 전 2000년 1월 11일 우리 가정은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몽골침례교 초기 선교사인 강토야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의 입국 비자를 도와주었던 문경식, 박달림 선교사님 가정의 따뜻한 환영이 영하 33도의 추위를 녹여 주었다. 3일 후 문경식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국립사범대 언어 과정에 입학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 우리 부부는 오전에는 사범대 교수님들의 1:1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언어 연습 파트너를 만나 열심히 몽골어를 공부하였다. 그 대학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고 너무 순수하지만 복음을 많이 접촉하지 못한 청년들이었다. 그 당시 사범대 언어 과정에서 몽골어를 수강하는 선교사는 우리 부부 외에는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몽골어 학과에 들어가면 몽골 청년들을 만나 몽골어도 잘 배우고,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셨다. 몽골어 학과에 들어가 수업을 듣는 나날 중 2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휴강이 된 날이 있었다. 그 수업을 듣던 십여 명의 학생들이 나에게로 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형님 왜 몽골에 와서 대학교에 다녀요?”라고 물었고, 그 순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현지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왜 이곳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그 순간이 전도할 기회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휴강 2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아는 모든 몽골어를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지 않겠느냐, 성경에 대해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모두가 좋다고 대답했다. 그 후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같이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 10개월이 지난 후 8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 8명 중 한 명이 “형님 왜 몽골에 와서 대학교에 다녀요?”라고 질문했던 형제이고, 가장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

우리가 몽골어가 서툰 때 만났던 청년 중 2명의 목사님과 사모님, 태권도 선교사들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 주셨던 것이라 확신한다.

## 2. 몽골교회 이양 후 국내사역에 정착하다.

우리 가정은 12년이 지난 후 몽골 한 가족 교회를 이양하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안주하고 싶었지만 이양 후 가까이에 있을 때 온전한 이양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가정은 한국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파송교회와 사역방향을 의논하였고 의논 끝에 2기 사역은 국내 사역으로 결정되었다. 남은 사역을 위해 몽골로 들어가 사역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있을 무렵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센터에 출입국 사무소에



서 조사가 나왔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을 포함한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출국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이 시점에 내려진 추방 명령은 우리의 출국 준비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가정의 국내 사역은 첫걸음부터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되었던 선교 사역 계획이 취소되었고, 후원교회들의 선교후원도 대부분 멈추었다. 또 한국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은 자녀도 있었다. 그러한 자녀를 보며 품고 기도하였고 아울러 한국으로 와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 몽골인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몽골인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내게 한 중국 선교사님의 강의는 나의 국내 사역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선교사님은 국내 선교의 장점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나는 수련회 이후 파송교회인 영안교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많이 모여 사는 김해에



서 김해 제일교회를 통해 몽골어 예배부 사역과 몽골출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한 센터 사역 등 국내 사역을 더 확장해 주셨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

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팠는데, 이 부분에서도 몇 개 나라 선교 스텝들이 모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기 위한 선교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사역 방향도 세웠다. 사역 목표는 선교원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선교원 아이들을 모집하였다. 몽골인, 조선족, 우크라이나인과, 카작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



려인 등 아이들의 국적은 다양했는데 이중 고려인이 80%였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부모들을 전도하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원래 사역 목표인 고려인 교회를 세우는데에도 성공했다.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사역자들이 청소년 훈련을 위해 청소년센터를 세우고 있어 그동안 진행했던 선교원을 마감하기로 했다.

### [기도문]

국내 선교로 1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난제들의 폭풍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품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 버렸을 때 당신께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셔서, 그 폭풍으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믿는 자들을 세계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사27:12,13)

### 3. “임선교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지”

4년 전 파송 교회인 영안교회에서 몽골, 키르기스스탄 선교대회를 열었다. 선교대회 이후 박정근 목사님께서 몽골 한가족교회 건축(성전, 태권도 체육관)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셨

다 그렇게 몽골에서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감사하게 건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박정근 목사님은 왜 4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셨을까? 나는 성전 헌당 예배를 위해 몽골에 방문했을 때 박정근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다. “왜 4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셨나요?” 박정근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건립되고 나서 외형적인 성전이 세워져야지, 임선교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몽골 선교를 시작할 때, 몽골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났던 성도들과 사랑이 메말라 있는 몽골에 '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태권도 NGO를 세웠다.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비전을 먼저 주신 후에 비전을 담은 첫 건물을 주셨던 것이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었다. 초창기에 만났던 형제자매들을 통해 한가족 교회에서 교회와 태권도 지도자들이 나왔고 이양 후에도 침례교 교회들과 영안 선교팀 연합으로 평신도 지도자 제자 훈련 학교와 청소년 캠프를 이어갔는데,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동력이 되었다. 신앙으로 무장된 한가족 태권도 클럽에서 국제대회 메달수상자들과 많은 태권도 선교사들이 나오는 등 영향력 또한 커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운 후에 외형적인 성전을 때에 맞게 세우시며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로 함께 도와주신 영안교회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 4. 하나님은 타이밍의 대가이셨다!

21년 10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체육관에 가득 메우는 이곳,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흥겹게 춤을 추는 소리, 태권도 기합 소리 모두 몽골 한가족교회 성전과 체육관 헌당예배의 현장이다.

이번 한가족 교회와 체육관 헌당예배 축하와 침례교 지도자 연합 세미나 진행을



위해 파송 교회인 영안교회와 박정근 목사님 그리고 하동식 선교 위원장님과 나는 몽골에 방문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몽골 한가족교회 지도자들로부터 4일간의 일정 내내 한 가지의 간증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다. 그 간증은 건축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이날의 봉헌은 불가능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전과 체육관의 건축 과정은 이랬다. 먼저 영안교회에 사랑의 헌금으로 건축회사와 계약을 하고 첫 2달간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계획한 후 건축에 중요한 철근과 시멘트, 중요 건축자재들을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던 도중 중국 국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쇄되었고, 몽골은 건축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3~4배 급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거쳤기에 건축 위원장 몽호에르텐 집사와 성도들은 건축이 2달 늦게 시작되었으면 한가족교회의 건축은 불가능하였다고 간증하였던 것이다.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데미 목사님과 몽호에르텐 건축위원장, 한 가족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과 태권도 체육관을 최선을 다하여 건립하고 봉헌하였기에 몽골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방문했지만 우리는 이들의 간증에 의해 은혜의 폭포수에 흠뻑 젖었고 거기 있는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났다.

## WMTC 훈련은 축복이다!

● 박천해 (33기 훈련생)

8년 전에 선교사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교회 파송으로 저 혼자 선교지를 밟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직장생활로 3개월의 훈련을 받을 형편도 못 되었고 같이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5년은 저 혼자서, 3년은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현지교회에서의 협력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사계획도 하며 바쁜 일정 가운데 있다가 3월부터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멈추고 훈련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이곳에서 저는 주님이 예 비해 놓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로서 거듭남의 기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의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선교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선교전략과 사역 계획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은 귀한 WMTC 33기 13명의 동기생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좋은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는 섬김으로 하나 되는 선교의 축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선교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훈련원 전체를 살피시는 원장님, 훈련 프로그램부터 강사 섭외 등등 최고의 선교 훈련이 되도록 기획하신 부원장님, 저희와 함께하며 섬겨주신 스태프분들, 훈련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FMB 회장님과 간사님들, 중보기도 팀원들, 그리고 풍성한 식탁으로 섬겨주신 교회와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되어 선교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심에 정말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때 자랑스러운 FMB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훈련의 열매를 간증할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고, 최고였습니다. WMTC 화이팅!!!



## 선교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

● 장주영 (33기 훈련생)

이번 33기 WMTC 훈련을 통해 선교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났다. 훈련원에 처음 온 그 날 벽에 붙어있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렇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안희열 교수님의 명언이 메아리쳐 들리는 것만 같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각기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선교지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른 것 투성이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훈련원에 와서는 나의 선입견이 먼저 앞섰다. 권이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경험을 통해 심어진 선입견이 있어서 내가 쓴 색안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셨다. 내가 그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훈련 받으며 강의와 더불어 함께하는 훈련생들을 통해 나의 관점을 바꿔주신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풍부한 경험, 깊고 예리한 지식, 따스함 편안함... 젊은 분들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 톡톡 튀는 위트와 에너지... 섬겨 주시는 스텝들의 보이지 않는 고뇌와 헌신, 그리고 훈련원을 향한 애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선을 이루었다. 함께 뭉쳐지니 훈련원의 틈이 매꿔진다. 한 장점을 가진 지체가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배우고 다른 장점을 가진 지체가 또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니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팀웍이라고 많은 강사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선교는 공동체랑 함께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훈련생들을 만났기에 너무 행복했다. 부족한 나를 다듬어주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점을 열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미래의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보리라는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퍼즐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WMTC 모두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제 이름은 Elif 입니다

### ● 정엘리프 (33기 훈련생)

저는 작년 연말로 남편과 수원 원천침례교회의 목회사역을 마치고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5명의 훈련 동기생들은 서로 섬기고, 아끼고, 배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교를 위한 훈련으로 교수님과 선교사님들의 주옥같은 강의와 간증이 있고, 실제적인 선교를 위한 행정과 선교전략, 다양한 선교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선교의 방향과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층 상담을 통해 저의 상태와 우리부부의 현재의 관계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힘과 밑거름이 되어 깊고 헌신된 사역의 빛을 발하리라 믿고 기대해 봅니다.

현지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가야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두려워 했던 마음의 짐이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수업 중 과제이기도 한 현지어 이름을 짓고 나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소명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제2의 인생의 세계가 펼쳐질 시간을 향하여 '첫걸음'을 튀르키예 땅에서 빨리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튀르키예 이름은 '첫걸음, 첫번째'라는 뜻을 가진 'Elif'입니다.

"Benim adım Elif." (제 이름은 Elif입니다.)

감사합니다.

# 33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 강태종 / 박한정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내딛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혼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심을 알 수 있도록.

### ■ 기도제목

1. 선교 훈련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도록
2.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3. 항상 감사를 잃지 않도록

● 김창겸



- 파송국가 : 르완다
- 파송교회 : 드림교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이 덮힌 그 곳에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난에 억눌린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르완다의 가난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2. 르완다 가정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자립교회가 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잘 접목할 수 있도록
3.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 박천해 / 이현숙(문춘, 민춘)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5~6)

누군가 일본 선교는 큰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이 무모하리만큼 힘들다고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너희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본 땅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일본 땅에도 성령 부흥의 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새로이 옮겨가는 사역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일본 선교를 함께 할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3. 늘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 ● 신희수



- 파송국가 : 중남미
- 파송교회 : 한샘교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도록
2. 구체적인 사역지와 사역의 방향을 주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도록
3. 선교의 동역자가 더해지도록(기도, 재정, 팀사역)

## ● 이유수프 / 정엘리프



- 파송국가 : 튀르키예(시리아 난민 사역)
- 파송교회 : 원천침례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공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하며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을 품고 나아갑니다. 저희 부부 안에서 이미 행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향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 ■ 기도제목

1.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며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2.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기도 후원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하게 하소서

● 이지현 / 장주영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춘천 한마음교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이전에는 혼자 이 말씀을 받고 나갔지만 이제는 부부가 되어 함께 말씀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작은 생명이 온전히 드러지기 원합니다.

■ 기도제목

1.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 되어 삶과 사역과 적응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도록
2. 인도네시아 신학교팀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3. 기도 동역자와, 현지 영혼들과, 사역자 등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4. 인도네시아 땅에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 이천우 / 이준애



- 파송국가 : 멕시코
- 파송교회 : 디딤돌교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행 13:47)

40년 넘는 미국 사역을 은퇴하며 주님께서 또다른 부르심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지막 걸음을 선교지에서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여갑니다. 늦은 나이에 또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려 합니다. 기도로 동역해주심을 믿으며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2. 영육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3. 사역에 많은 동역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사역의 방향이나 계획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하소서



## ● 장인욱



- 파송국가 : 남미 페루
- 파송교회 : 대전 예수마음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7년 전부터 남미의 페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산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 ■ 기도제목

1. 가족들의 복음화
2.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

## ● 정혜성 / 이자인(시은)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단 12:3)

한국과 가장 가까운 미전도 지역, 일본으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복음화율이 0.4%인 일본에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일으켜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

1. 현지 정착과 언어 습득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2. 늘 성령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일본 땅을 변화시킬 평화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 사진으로 보는 33기 훈련이야기





##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머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서 12:1-2) [새번역]

침례교 해외선교회(FMB)는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연 2회(2, 8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선교사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MB 인턴선교사 제도의 목적은 6개월~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지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11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8명은 선교지에 파송(예정) 되었거나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선교지의 사역들은 끊이지 않고 되레 더욱 왕성해지기도 합니다. 현지의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가 함께 뚫어내야 하는 것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사회 안에서의 치열함, 그로 인해 많은 피로감을 느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세대의 청년들을 더욱 중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턴선교사 4기 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1년 휴학하고 선교를 경험하기 위해 온 청년,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온 청년 등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참 빛나고 귀했습니다.

인턴선교사 훈련은 총 10일이며 그중 2박 3일은 국내 무슬림권 미션트립과 전도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청년들은 해외가 아닌 국내의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고, 선교지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체감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며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각 선교지에 1년씩 파송되어 나아갈 인턴 선교사들의 기도제목과 훈련 중 미션트립 소감을 짧게 나누어 드립니다. 기억하며 중보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 ● 조슬아(가명)



- 파송국가 : U국
- 파송교회 : 원주침례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U국은 이슬람이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한 곳입니다. 가족들이 믿고 있기에 이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무슬림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더욱더 진리인 예수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고백하며 이를 또 다른이들에게 전하는 U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매순간 친밀히 교제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2. 내 힘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U국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3. 언어습득 할 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섬김과 사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4. 선임선교사님, 성도분들과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 ● 목민기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마산영광침례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3)

일본은 순교자의 피가 분명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하게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일본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 ■ 기도제목

1.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2.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육체의 건강이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3. 선임 선교사님께 잘 배우며 선교를 위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4. 현지 교회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 주이레(가명)



- 파송국가 : A국
- 협력교회 : 대전대흥침례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후, 보여주신 A국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슬림 국가인 A국의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A국 언어와 문화 습득에 지혜를 주소서
3.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게 하소서
4.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박에스더



- 파송국가 : E국
- 파송교회 : 오라침례교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 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시편 37:23-24)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교육이라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 마음의 합한 그 땅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의 삶 살 수 있도록
2.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3. 다음 세대의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4. E국의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제자들을 세우도록



## 선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 ● 박에스더 (E국 인턴선교사)

4일 동안 미션트립을 준비해서 가라는 미션을 받고 김해 선교사님과 줌 미팅을 하고 나서는 한 동안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짧은 시간과 변화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특송, 무언극,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사역을 해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여행, 미션트립'의 개념은 나와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로 열심히 준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션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바꾸셨다. 나는 E국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대로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고 고백했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번 미션트립을 통해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선교의 주인공이자 리더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출발 전날 밤, 겨우 2시간 정도 눈을 붙인 채 터미널로 떠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기쁨과 감사, 설렘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번 미션트립 기간 동안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매 순간 하나님의 총만한 은혜 속에서 영육 간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셨다.

김해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E국에 살았던 때가 생각나며 현지에 온 것만 같은 낯설과 불편함이 몰아쳤다. 선교지의 그 열악함과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내가 가고자 하는 E국 땅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하시며 E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바래어진 그곳에서의 힘들었던, 어려웠던 모든 기억들이 점차적으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 순간을 통해 후에 어쩌면 "하나님, 제가 힘들었던 것들 다 잊고 E국의 좋았던 기억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후회해요!"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 마음을 내게서 가져가셨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그 땅을 섬기기 원한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즈베키스탄을 변화시키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기도한다. 이번 미션트립과 전도 아웃리치를 통해 한국에 나와있는 무슬림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들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이며 기쁨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 함께함의 은혜

● 김지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이번 단기선교는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청년들과 함께했던 선교와는 많이 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의 역할에 맞게 팀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황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은혜를 주셨고,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팀원들과 함께이고, 서로 돕기에 해낼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었다. 단기선교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작정기도를, 청년들도 모임과 삶 속에서 팀을 위해 중보해 주었다. 우리만의 힘이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할 수 있었고, 우릴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한다.

튀르키예로 출발하기 전,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에 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짐을 옮기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이륙해야 할 비행기가 2시간 30분 가까이 연착되고, 카자흐스탄에서 환승할 비행기를 놓치는 등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때 변화무쌍한 선교의 시작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여 분주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지금 서 있는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저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이곳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았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셨다.

드디어 튀르키예에 도착하여 한국어 교실 사역, MK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 튀르키예행을 결정할 때, '한국어 교실에서 가르쳤던 청년들 보러 가야지!'고 어쩌면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무거워졌다. 단순한 교제가 아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갔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부세, 한국 이름은 바다였다. 우리와 함께 했던



한국어 교실 사역 이후, 그 학생이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속 마음이 갔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인지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갔다. 그 아이가 등록했다는 소식을 나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곧 만나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한국어 교실을 통하여 보았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MK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잘 세워지고 잘 자라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해 아낌없이 부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었던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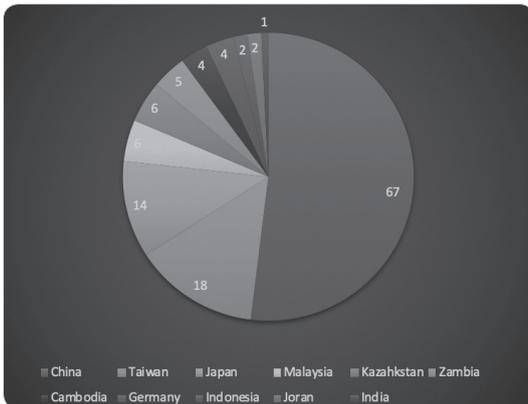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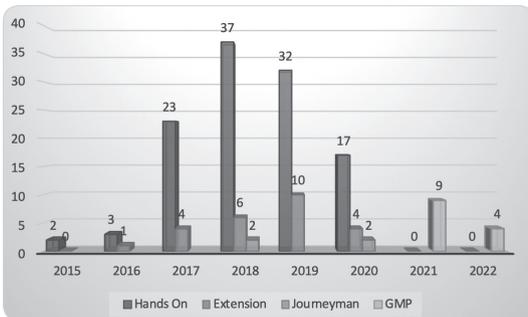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튀르키예 땅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보기도의 힘, 부족한 나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 핸즈온, 저니맨 단기 선교 프로그램

미 남침례회 국제선교부(IMB)는 2015년 부터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와 공동으로, 젊은 청년들이 타문화권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지상대사명에 참여하도록 돕는 선교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현지의 언어 과정에 등록하거나, 개인 교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면서 타문화권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타문화권 속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 습득의 실제적 기회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역하는 동안 현지 IMB 선교사의 멘토링을 받으며, 현지 IMB팀사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 훈련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청년들은 현지에서 실제

사역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한국 교회를 이들을 통해 차세대 세계 선교의 리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트랙은 20세부터 29세 연령의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핸즈온 프로그램입니다. 핸즈온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선교지 IMB팀에 참여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번째 트랙은 대학 졸업 이상 39세 까지 청년들

〈지난 8년간의 핸즈온, 저니맨과 GMP 파송 현황〉



이 참여하는 저니맨 프로그램입니다. 저니맨 프로그램은 자녀가 없는 기혼자도 참여할 수 있고, 최소 2년 혹은 3년 동안 선교지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타문화권 사역에 열정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 신앙과 메세지(The Baptist faith and message)에 동의하면 소속 교단에 상관 없이 지역 교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소정의 안전과 보안 교육, 전도 훈련 그리고 선교 전략 훈련을 받으며, 지원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선교지에 배치됩니다.

2015년 1기가 파송된 이후로 2023년 3월초에 13기까지 13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지에 다녀오고 현재 사역중이며, 파송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파송되었습니다. 헨즈온과 저니맨을 다녀온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선교의 경험이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잠시 지원자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해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현재 10명의 헨즈온과 1명의 저니맨이 잠비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와 인도의 두 지역에 파송되어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과 8월말 두차례에 걸쳐 파송하고 있으며, 파송전 2개월전에 지원이 마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교회나 청년들은 IMB 한국 웹사이트 [imbkorea.org](http://imbkorea.org)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지부 김은규 간사([korea@imb.org](mailto:korea@imb.org))에게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6월 - 상반기 선교사 시취
- 7월 - 뉴 배티스트 비전 캠프
- 10월 - FMB 선교포럼
- 11월 - 은퇴선교사 감사예배
- 12월 - 선교사 시취

###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1. KWMA, NCOWE 2023 대회 참석

- 1) 일시 : 6월 13일 ~ 16일
- 2) 참석자 : 문승호 연구원, 황기 총무

#### 2. SRDC 2023 전략회의

- 1) 일시 : 10월(미정)
- 2) 참석자 : 부원장, 연구원, 총무



## 세계선교훈련원(WM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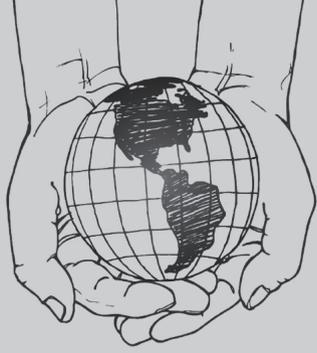
###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MUT- Professional	MUT-Senior
훈련기간	2023년 7월 4일~8월 3일(5주간)	2023년 10월 17일~11월 9일(4주간)
훈련대상	만 6~12년 차 현직 FMB 선교사(55세 미만)	55~65세 미만 현직 FMB 선교사
훈련내용	삶과 사역에 대한 평가, 사역 방향설정, 가정생활 등	삶과 사역에 대한 회고, 변화하는 세상과 선교 방법에 대한 고찰, 사역 이양과 정리, 선교사의 은퇴와 생활 적응 등

###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교회 방문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
  - 기간 : 9~11월(8~10주, 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대면 강의 + 과제물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이현모 교수의 전담 강의로 이루어진 온라인 선교이론 교육
  - 기간 : 9월~12월(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강의 소감문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 in2mission

## 인투미션 선교학교

###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잡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우선순위 부여
  - 인턴선교사 훈련 자격 인정(2, 8월에 열리는 국내 타문화권 미션트립 및 전도 아웃리치 모두 참여 시 인턴선교사 최종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